

# ACC, 문화예술로 '민주·평화' 세계에 확산

개관 5주년...올 사업계획 발표  
5·18 40주년 기념 전시·공연  
콘텐츠 160종·관람객 300만 목표



아시아문화전당은 올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평화와 인권을 가치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올해의 핵심가치를 '평화'로 정하고 '평화를 키우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는 ACC'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이 문화예술을 통해 기억되고 실현되는 것은 물론 광주의 정신을 아시아와 세계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그동안 ACC는 개관 4년 만에 누적 관람객 1천만 명을 달성했으며 지난 3년간 1조4587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차별화된 복합문화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는 관람객 300만 명 달성, 콘텐츠 창작자 160종 등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0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17면>

ACC는 올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계기로 평화와 인권 가치를 조망하는 다양한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완성도 높은 시범공연으로 호평을 받은 '나는 광주에 없었다', 2018년 '광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공모에서 선정돼 작년 시범공연을

거친 '시간을 철하는 사람'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지역음악인 및 시민합창단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클래식 음악회 '오월 음악회', 광주를 다룬 소설과 시 작품 낭독회, 찻집과 진흥 등을 담은 '5·18 40주년 기념 문화제' 등도 예정돼 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한 스토리 공모 및 아시아 평화 주제 국제협업 공연도 창·제작된다. 5·18을 현재 관점에서 재해석한 작품을 매개로 민주와 인권, 평화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복안이다.

미디어아트 전시 및 작가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전시도 펼쳐진다.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관객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키네틱 미디어아트 전시인 '아시아무브먼트'와 장자연 작가의 미디어월 퍼포먼스 '빛', 아시아 민주주의 역사를 매개로 문화공동체를 제안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아시아 평화의 연대' 등도 예정돼 있다.

5월부터 6월까지의 민주평화교류원이 임시 개방되며 '민주·인권·평화 콘텐츠 공모전', '오월스토리 퍼즐'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지난해 30회에서 올해 40회)할 계획이다.

5·18 관련 행사도 다채롭게 추진된다. 5·18민주화운동과 아시아의 민주화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평화·인권 가치를 제고하는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포럼', 오월의 가치를 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인권·평화 콘텐츠 공모전' 등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올해는 ACC가 개관 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5·18의 광주정신 확대와 아울러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아시아의 중요성,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 증대 등 변화에 맞춰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ACC는 핵심 가치인 평화와 ACC의 프로그램과 추진 사업에 녹아들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에 더욱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창작자에서 유통까지 기능을 담은 '실용적 문화 창조 산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공감과 치유의 문화 동반자', 아시아와의 교류와 상생 기반인 '아시아를 잇는 문화 허브'라는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실용적 문화 창조 산실'에 따른 과제로는 콘텐츠 창작자 활성화, 콘텐츠 유통 체계 강화, 문화연구 및 아카이빙 고도화가 담겼다. 또한 '공감과 치유의 문화동반자'로는 평화·인권·가치의 확산,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차별화, 누구나 즐기는 고객 감동 문화전당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를 잇는 문화허브'로는 국제교류 협력 강화, 문화전당 브랜드 구축, 문화로 혁신하는 지역 상생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기생충' 韓 최초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

작품·감독상 등...세월호 다큐 '부재의 기억'도 노미네이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마침내 오스카 무대에 오른다. '기생충'은 13일(현지시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 발표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국제영화상까지 총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관련기사 19면>

그동안 외신 등은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후보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점쳤으나, 예상보다 더 많은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시작으로 숨 가쁘게 이어온 '기생충' 수상 퍼레이드는 다음 달 9일 미국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 처음을 무려 6개 부문에서 한꺼번에 장식한 것이다.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실제 받으면 한국 영화 100년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세계 영화산업 중심인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그만큼 전 세계 영화인이 선망하는 꿈의 무대다.

'기생충'은 '조조 래빗' '작은 아씨들' '결혼 이야기'와 함께 6개 부문에 올랐스카 무대에 오른다. '기생충'은 13일(현지시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 발표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국제영화상까지 총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관련기사 19면> 그동안 외신 등은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후보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점쳤으나, 예상보다 더 많은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사례도 기존에 한 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으면 아카데미 새 역사를 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월호 참사를 다룬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부재의 기억'이 '기생충'과 함께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면서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이준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은 13일(현지시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 발표에서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노미네이트됐다. 이 작품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영상과 통화 기록을 중심으로 그날 현장에 집중하며 국가의 부재에 질문을 던지는 다큐멘터리다. /연합뉴스

## '유치원3법' 통과...모든 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유치원 설립·경영자격도 법제화...광주교육계 환영 입장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하다는 폭로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유치원 회계비리를 형사 처벌하는 법이 통과됐다. 사립유치원 측이 지난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벌이며 반대했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도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 회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사학법 위반으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치원 회계비리가 적발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교육당국이 정권 감축 등 행정적인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로 사립유치원 측이 명품

백, 성인용품 등을 구매하는 등의 행태가 폭로돼 시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된다. 기존에는 설립·경영자 개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격 규정이 없어 누구나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거에 유치원을 부실 운영해 폐쇄 명령을 받았던 자,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확정 판결받은 자 등은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다.

유치원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일도 금지된다. 유치원 비리에 대한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서다. 유치원이나 법을 어겨 보조금 반환 명령,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아

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학부모·교원 대표로 구성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유치원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위생 기준이 적용된다. 유치원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려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광주 교육계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4일 성명을 내고 "사립 유치원들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돼 회계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세우고 투명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교사노동조합 성명을 통해 "이번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사립 유치원이 법 테두리로 더 깊게 들어와 학교 범주에 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이라고 평가했다.

교사노동조합은 "사립 초·중등 학교 교사들이 공립 교사와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처럼 사립 유치원 교사도 공립과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 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韓과 같은 관찰대상국

미국은 1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돌려놨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잔류했다. 작년 8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지 5개월여만으로, 15일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약 서명 이틀 전에 해제에 이뤄진 것이다.

중국이 1단계 합의 일환으로 경쟁적 통화 절하를 삼가고 관련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는 것이 해제에 주된 이유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반기로 나오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하고 원래 있던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1단계 무역협약에 이르렀다면 중국이 이 합의에서 경쟁적 통화 절하를 삼가고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기 위해 이행 강제적인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도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의 근거로 들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투명성과 책임감을 촉진하면서 경쟁적 통화 절하를 삼가겠다는 이행 강제적인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중국에 부여했던 '환율조작국 낙인'을 5개월여만에 거둬들이게 됐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발표는 미국이 중국과 1단계 무역협약에 서명하기 이틀 전에 이뤄졌고, 중국 대표단은 서명을 위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지는 데 실패했다. 대미무역 흑자가 203억달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0%로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가 해당한 것이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연합뉴스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임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목포시 대양동 1중주거지 4121㎡ 투자·매도·개발 등 적합 7억9천
- 남구 월산동 1중주거지 637㎡ 원룸·다세대 적합 7억8천
- 담양 월산면 월계리 대지 등 2268㎡ 전원생활 적합 교환 가능 1억5천
- 월산동 돌개역 인접 소방도철 2중 주택 106㎡ 집 112㎡ 공방등 적합 1억3천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방 좋은 1억3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664㎡ 주택 124㎡ 4억3천 조용한 생활 적합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월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치고 평당 23만원
- 화순 농주면 소재지 2612㎡ 전원생활최적합 2억7700
- 함평군 수월면 산남리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곡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약육용 건물과 교환 가능 20억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매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신10000㎡ 사할·회기 화살·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 건물**

-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추령교개 땅 403㎡ 가계 197㎡ 카페용 편의점 적합 1억3000
- 서석동 조대안 4층 상가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충장로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9천 월1200 매도 26억
- 월산동 농성초교 도로점 190㎡ 2층 상가주택 185㎡ 매도 3억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뮤니티 단지 73㎡ 2중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 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빌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 물건**

- 구례군 구례읍 서치천(방의면) 11050㎡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
- 목포대부군 창계면 도량리 2중주거지 4413㎡ 강정5억7천 농협 4억3천 매도 1억천
- 화순군 동면 서성계 밭장 대용교환 가능 은행 3억 전세 1억 매도 6-7억
- 나주시 남매동 상업지 959㎡ 마트·식당·디오구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 9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